

現行 壽衣 着衣法에 關한 研究

南珉珉* · 白英子

韓國放送通信大學校 家政學科 時間 講師*, 韓國放送通信大學校 家政學科 教授

A Study about Current Putting on a Shroud

Min-ye Nam* and Young-ja Baik

Instructor, Dept. of Home Economics,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Home Economics,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Abstract

A shroud is clothes for giving a dead person a bath and being finely dressed: though our routine clothes have been western, putting on a shroud has been kept comparatively well as a tradition of a conventional ceremony garments.

This study is about the current using of dressing a shroud, and for presenting foundations of a way about dressing a shroud in order to make the most of this by everyone, therefore this research will be worthwhile to preserve the traditional custom of giving a dead person a bath and being finely dressed.

1. We must confirm the death of a person before we do Su-Si for controlling rightly a corpse.

Su-Si is ways of changing a clean clothes after bathing the dead person, tying up hands, feet and ankles with a string, filling up a mouth, a nose and ears with a wad of cotton, laying down the dead person with his head toward east, and setting up a screen after covering the dead person with a bed sheet.

2. Here are processes of putting on a shroud.

After the day of death, first of all, you must untie the string to control rightly a corpse, take off the clothes, and give a dead man a bath.

You trim the dead person's fingernails and toenails, put them in O-nang, then put his hands and feet in five pouches, finally put feet in korean socks and wrap with Ak-su.

You put a underwear in a overwear in order to put on the clothes easily, and then put on an upper garments after putting on trousers. And put on Sb-sin

After you wash the dead person's face and his hair, you put gems and raw rice in his mouth, wrap head with cotton fabrics, and put hairs into five pouches, then put on a headgear which is filled with five pouches.

3. You tie up with hem cloth the dead person dressed a shroud after wrapping with Dae-ryum-km and So-ryum-km.

4. After you encoffin the dead person, you weave coffin strings with cotton fabrics in order to lift up the coffin easily, and lay down a red fabrics having white letters about the dead person's name or social position onto the coffin, then cover the coffin with a coffin cover : finally you leave the coffin at the former place and set up screen.

I. 서론

염습은 사자(死者)를 목욕시키고 시신을 성장시켜 입관하는 과정으로서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사자(死者)의 가족이나 친지들이 정성을 들여 염습을 해왔으며 이 때 전통 의례복

으로서 수의를 입힌다.

수위는 일상생활의 서구화로 일상복이 서구화된 요즘에도 여전히 전통 한복으로 이루어져 있어¹⁾, 사회의 변화에 따른 관습 및 복식의 급속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서도 비교적 전통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 사회의 산업화와 핵가족화는 예로부터 행해져 오던 전통 관습에 대해 참여할 기회는 물론 볼 기회조차 드물게 되었고 더구나 상례에 관해서는 많이 간소화되고 장의사를 중심으로 한 속장이 행해지는 경우가 많아 가족들이 사자(死者)를 씻기고 수의를 입히던 관습은 거의 사라져가고 있다.

수의에 관한 선행연구는 문헌이나 유물을 토대로 한 연구가 다수 있으나, 입히는 법 등은 한 두쪽 언급하는 정도에 불과하며 각 연구자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정리되어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현대에 사용되어지고 있는 수의의 착의방법에 관해 알아보고 그 기본틀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며, 사자(死者)를 씻기고 성장시키는 전통 관습의 보존에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의 불교 연화회와 불교 방송국 원왕생 교육에서 교육하고 있는 수의 착의법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실용적인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인체를 모델로하여 입히는 순서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제시하였다. 연구범위는 전통적이고 역사적인 염습법 보다는 현재 행하여지고 있는 수의 착의법에 관한 연구로 그 범위를 제한하였다.

II. 상례 차례 및 수의

상례 차례 중 습(襲), 소렴(小殮), 대렴(大殮)을 염습(殮襲)이라고 한다.

주자가례를 기준으로 한 절차에서는 습(襲)은 시신을 씻기고 사망 당일에 행하며, 소렴(小殮)은 수의를 입히는 것으로 습을 한 다음날에 행하고, 대렴(大殮)은 소렴을 한 다음날에 하였으나³⁾ 현대는 3일장을 기본으로하여 일반적으로 사망 당일에 수시, 2일째 염습, 3일째 발인을 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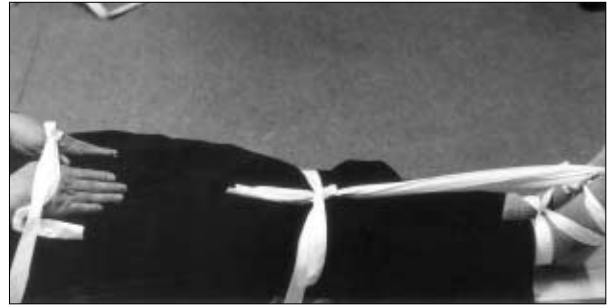
1. 수시

수시란 시신을 수습한다는 말로 사망 후 몸이 굳어지기 전에 시신을 바르게 해주는 것이다.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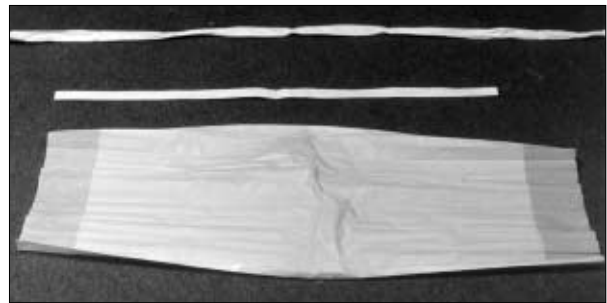
① 습, 심장이나 혈액의 맥, 동공, 배설물 등으로 임종을 확인하게 되면 몸을 깨끗이 한다.

몸이 굳기 전에 팔다리를 가지런히 하며 굳어진 경우는 더운물로 씻거나 따뜻한 수건으로 주물러 잘 펴지도록 한다음 정갈한 옷(수시복, 수세복이라고도 함)으로 갈아 입힌다.

② 칠성판을 받침대 위에 놓고 시신을 반듯이 모신다.



<그림 1> 동여매 때 매듭을 짓지 않고 비틀어 한쪽에 끼워 넣는다.



<그림 2> 종이로 끈 만드는 법



<그림 3> 끈을 옥매지 않고 비틀어 끼우는 법

- ③ 머리는 낮은 베개(옛날에는 짚으로 만듦)로 반듯하게 고고 동쪽으로 향하게 한다.(불교에서는 서방정토 아미타 사상에 입각하여 서쪽으로 모시기도 한다.)
 - ④ 두 팔과 손을 바르게 펴서 배 위에 공수한 모양으로 올려 놓는데 남자는 왼손이 위로 가게 하고 여자는 오른손이 위로 가게 겹쳐서 혹은 두 손을 가지런히 펴서 백지나 먼·베로 만든 끈으로 움직여지지 않도록 동여맨다.
 - ⑤ 양어깨도 동여매고 두 다리도 벌어지지 않도록 무릎과 정강이를 동이고 발목도 발끝이 뽕쳐져 굳어지지 않도록 정상으로 굽혀 고정시키는데 이 때 노인들이 몸을 꺾 때 쓰던 안상과 같은 도구인 연계를 사용하기도 한다.
- 다리를 묶는 것을 철족이라 하기도 하며, 여자는 시봉

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허벅다리 부위를 조여 매기도 한다.⁵⁾

무릎을 고정시킨 끈과 발목 끈을 연결하여 준다.(손을 묶은 끈과 발목 끈을 연결하기도 한다)

⑥ 턱이 처지지 않도록 목에 햇숨이나 생베 등으로 보공을 만들어 받치고 이(齒)가 맞물려 굳은 채 벌어지지 않는 것을 방지하는 설치를 하기도 한다.

설치란 나무나 뿔을 멍에처럼 깎아 만든 쇠기로 이(齒) 사이에 물리는 것을 말한다.

이 때문에 보통 수시를 설치와 철족이라 하기도 한다.

⑦ 탈지면으로 시신의 입, 코, 귀 등을 모두 막아 준다.

⑧ 시신을 홀이불(수세포)로 덮어 벽쪽으로 모신 후 병풍으로 가린다.

2. 수의

습, 소림, 대림 단계에서 시신에게 입혀지는 것을 넓은 의미의 수의라 할 수 있으며, 습 단계에서 입혀지는 습의를 좁은 의미의 수의라고 할 수 있다.⁶⁾

1) 수의의 재질·색채 및 치수

수의 옷감은 옛날에는 삼베, 모시, 무명, 초, 증(繪), 능, 공단, 은조사, 생고사 등이 이용되었고, 사대부 층에서는 비단, 경제가 어려우면 명주, 서민들은 삼베로 했는데 최근에는 삼베의 사용이 가장 많고 명주와 삼베를 안팎으로 섞어서도 사용하고 있으며 명주, 비단, 목면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주로 수의를 삼베로 하는 것은 삼베의 특수한 성분 때문이기도 하다.

여름철 삼베 보자기로 밥을 덮었을 때 쉬지 않게 하는 항바이오 작용이 사체가 유탈되면서 벌레나 잡균이 침범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해 주고, 삼베는 산에 강하므로 시신이 유탈되는 과정에서 뼈가 흐트러지지 않게 바르게 잡아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⁷⁾

삼베는 생산지에 따라 북포(北布), 강포(江布, 강원도), 안동포, 남해포, 순창포, 보성포 등으로 부르며, 그 중 안동에서 생산되는 안동포를 가장 상품으로 치고 있으나 값이 비싸고 구하기도 힘들어 요즈음은 가격이 싼 중국산이 대량으로 수입되어 많이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명주는 직조 방법이나 굵기에 따라 공단, 명주, 감사, 양단, 연초, 한단 등으로 불린다.

수의는 본래 유색을 사용했으며 들이는 물감은 청은 청디물·닥나무잎, 홍은 잇다홍, 황은 희나무 열매, 자주는 짓

치·추치부리, 검정은 쪽물, 분홍은 연지로 들였으나⁸⁾ 점차 소색을 사용하게 되었으며, 요즈음에는 주로 소색이나 백색도 이용되고 있으며 면목, 약수, 모자 등에 같은 검정, 안은 붉은 색을 쓰기도 하며 연한 색을 일부에 이용하기도 한다.⁹⁾

수의의 치수는 체격에 따라 달라지며 시신을 감쌀 정도로 크게 하며 품목에 따라서 최소한 5cm부터 최대한 30cm 이상은 크게 제작되고, 옷감은 삼베나 명주로 280~330자 혹은 300~380자 가량 필요하며 속장에서는 200자 정도가 든다.

2) 수의 품목

남녀 공용 수의로는 면목, 과두, 오냥, 약수, 버선, 습신, 대림금, 소림금, 천금, 지요, 베개 등이 있으며, 공용을 제외한 남자의 수의는 심의, 창의, 겹옷, 저고리, 속적삼, 바지, 속고의, 복건이 있고, 여자의 수의로는 원삼, 당의(정경부인, 정부인의 호를 받았을 경우), 연두 삼회장 저고리, 노랑 삼회장 저고리, 분홍 속저고리, 속적삼, 홍치마, 청치마, 단속곳, 바지, 속곳, 여모가 있다.¹⁰⁾ 그러나 요즈음에는 공용 수의에다 남자는 도포와 두루마기, 저고리와 속적삼, 바지와 속바지, 복건, 여자는 원삼, 저고리와 속적삼, 치마와 단속곳(혹은 속치마), 바지와 속바지(혹은 속속곳), 여모로 이루어져 있고, 가문이나 지역에 따라 행전, 턱받이, 머리·가슴·손 등에 장식 등이 사용되기도 한다.

형태에 있어서는 저고리와 속적삼을 하나의 것에 달고, 바지와 속바지의 허리를 같이 달고, 치마와 단속곳(혹은 속치마)을 한 말기에 달아 착의에 편리하도록 제작되어 이용되고 있다.

수의 품목 중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명칭들과 용도를 간단히 표시하면 <표 1>과 같다.

표를 살펴보면 염포와 매장베의 명칭이 섞여 있고 구분이 되지 않고 있는데 현재는 염포는 시신을 마지막에 쓰는데

<표 1> 수의 품목의 다른 명칭과 용도

	다른 명칭	용도
수의	호상옷, 저승옷, 죽음옷, 망인옷, 장래옷	시신에 입히는 옷
면목	면목, 맥목, 낫모, 면모, 명수	얼굴싸개
오냥	오냥, 조발랑이, 조발랑, 주머니	손톱, 발톱, 머리카락을 담는 주머니
과두	복보	배를 가리는 천
약수	손싸개	손을 싸는 천
천금	이불	입관시킨 후 덮는 천
지요	지금, 요	관 밑에 까는 요
염포	장매, 멧베, 장포, 장매, 멧베, 맥시베, 매장베	맨 마지막에 시신을 싸는 천

사용되는 수의 품목의 명칭으로, 매장베는 탈관시 매(21매)를 지어 묶을 때 사용하는 베 한필을 부를 때 사용되는 수의 품목의 명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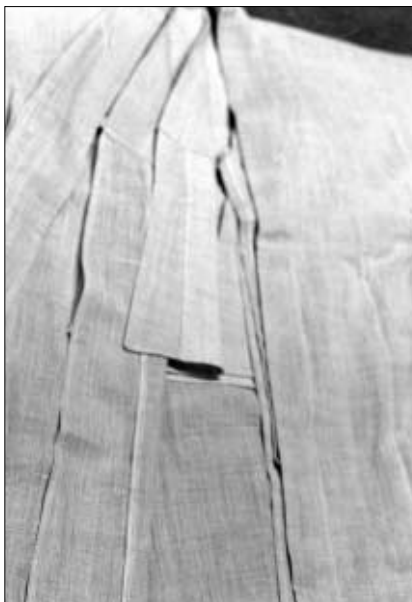
III. 착의 절차

사망 다음날 시신을 깨끗이 닦고 수의를 입혀 입관할 때까지의 절차로 염습(殮襲)이라고 하며 요사이에는 한꺼번에 이루어진다.

1. 습(襲)

옛날에는 습(襲)이 시신을 목욕시키는 것으로 운명 당일에도 했으나 요즘은 운명 다음날 시신을 깨끗하게 목욕시키고 수의를 입히는 것이다.

- ① 옷을 입힐 때 가능한 시신을 덜 움직여야 하므로 한번에 입힐 수 있도록 속옷을 겉옷에 끼워 넣고(도포, 두루마기 속에 저고리와 적삼, 원삼 속에 저고리와 적삼, 바지 속에 속바지 등으로) 입히는 순서대로 정리해 놓는다.
- ② 병풍을 걷어내고 흠이불(수세포)을 약간만 덮혀 있도록 한쪽에서 들고 수시할 때 묶여 있던 끈을 푼다.
- ③ 옷을 벗겨낸 후 따뜻한 물이나 향탕수, 향나무, 삶은 물, 썩 삶은 물 또는 소독용 알코올을 탈지면이나 수건에 적시어 시신의 발부터 거슬러 올라가 상체에 이르도록 닦아낸다.



<그림 4> 속옷을 겉 옷에 끼워 넣은 모습

- ④ 양쪽 손톱을 깎아 각각 오냥에 넣고 악수로 손을 싸면서 양쪽에 넣고, 양쪽 발톱을 깎아 각각 오냥에 넣어 양쪽 버선 속에 넣고 버선을 신긴다.



<그림 5> 버선을 신긴 모습

- ⑤ 미리 겹쳐 놓은 아래 옷(남자는 바지와 속바지, 여자는 바지와 속속곳, 치마와 단속곳)을 입힌다.



<그림 6> 버선과 바지의 착의 모습

- ⑥ 윗 옷을 입힐 때는 겹쳐진 옷을 다리 밑에서부터 어깨까지 위로 치올려서 양쪽 팔을 끼워 입히기도 하고, 한쪽 팔을 먼저 끼우고 등 밑으로 다른 팔 쪽으로 옷을 밀어서 반대편 팔 쪽에서 옷자락을 잡아 뺀 후 한쪽을 마저 입히기도 한다.
- ⑦ 수의를 잘 여미고 습신을 신긴다.
- ⑧ 마지막으로 얼굴을 씻기고 머리를 감겨서 단정하게 손질한다(옛날에는 땀기로 동여 상투를 틀거나 여자는 쪽지고 버드나무 비녀를 꽂았다)
반향(쌀을 물에 불려 버드나무 수저(유시)로 입속에 오른쪽, 왼쪽, 가운데 세 번을 떠넣는 일, 입 속에 구슬을 물리기도 함)을 하고, 가슴에 동전을 넣는다.
면목으로 얼굴을 쌀 때, 한 개 남은 오냥에 머리카락을 넣어서 복건이나 여모 속에 넣고 씌운다.



<그림 7> 면목으로 얼굴을 싸는 모습

⑨ 염포를 편 다음 지오, 베개를 깔고 시신을 올려 놓은 후, 천금으로 덮은 후 머리에서 발까지 묶어 준다.

2. 소렴(小殮)

수의를 입힌 시신을 이불(대렴금, 소렴금)로 싸서 염포로 단단히 묶는 것이다.

매장할 때 관(棺)은 태워버리고 시신만 매장하는 탈관(脫棺), 퇴관(退棺) 풍습이 있는 지역에서는 멧베로 시신을 묶어 준다(매질한다고도 함).

멧베는 베 한 필을 7등분하여 다리에서 머리까지 깔고 양쪽 끝을 세 갈래로 나누어서 아래에서부터 차례로 묶으면 전부 21매가 된다.

3. 대렴(大殮)

시신을 입관(入棺) 하는 것을 말한다.

- ① 요사이는 수의를 입힌 후 관(棺) 속에 석회를 고루 편 뒤에 백지를 깔고 대렴금(혹은 염포)을 까는데 아래날개, 위 날개, 옆 날개 부분을 관 밖으로 내 놓는다, 그 위에 지오·베개를 깔고 시신을 모신 후 천금을 덮고 날개부분(아래, 위, 옆 순서로)을 여민다.
- ② 빈 곳에는 보공(補空)을 하는데 줄풀 말린 것을 잘라서 창호지에 말아서 넣기도 하고 요즈음은 휴지, 옷, 백지로 채우기도 한다.
- ③ 백지로 위를 덮고 관의 뚜껑을 덮는다.
- ④ 관관(소창)으로 잘 엮어 관을 들기 좋게 손잡이를 만든다.
- ⑤ 명정(銘旌)을 덮고 관보를 씌운다.
- ⑥ 제자리에 관을 모시고 병풍을 친다.

IV. 결론

현재 사용되어지고 있는 수의의 착의법에 대해 운명을 확인하고 나서부터 입관하기까지의 과정을 수의 착의를 중심으로 기본을 제시한 것을 요약,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운명이 확인되면 시신을 바르게 수습하는 수시를 사망 당일에 한다.

몸을 깨끗이 한 후 정갈한 옷으로 갈아 입히고 두 손을 배 위에 공수한 모양으로 올려 놓고 백지, 면, 베로 만든 끈으로 동여 매고, 무릎·정강이를 동이고 발목도 발끝이 정상으로 되도록 묶고 무릎과 발목 부분을 서로 연결해 준다.

턱이 처지지 않도록 보공 및 설치를 하고 입, 코, 귀를 탈지면으로 막은 후 머리를 동쪽으로하여 흠이불을 덮어 벽쪽으로 모신다.

2. 수의는 주로 삼베로 짓고 명주, 비단, 목면으로 만들고 있다. 색은 주로 소색이나 백색, 옅은 색도 이용되고 있다.

크기는 평시의 옷보다 5-30cm정도 크게 제작되며 옷감은 200-380자 정도 든다.

3. 수의 품목은 공용으로 면목, 과두, 오냥, 악수, 버선, 습신, 대렴금, 소렴금, 천금, 지오, 베개 등이 있고 남자 수의는 도포나 두루마기, 저고리와 속적삼, 바지와 속바지, 복건, 여자수의는 원삼, 저고리와 속적삼, 치마와 속치마, 바지와 속바지, 여모로 이루어져 있다.

4. 수의 입히는 절차로는 수시 때의 끈을 풀고 난 후, 옷(수세복)을 벗기고 향물이나 알코올로 발부터 깨끗이 닦아 낸다.

손발톱을 깎아 오냥에 담고 손발에 끼워 버선을 신기고 악수로 싣는다.

입히기 쉽게 속옷을 겹옷에 끼워서 아래 옷부터 입히고 윗 옷을 입힌 다음 습신을 신긴다. 얼굴을 씻기고 머리를 감겨서 손질하고 반함을 한 후 면목으로 싸고 머리카락을 오냥에 담아 복건이나 여모 속에 넣고 싣운다.

5. 수의를 입힌 시신을 이불(대렴금, 소렴금)로 싸고 염포로 묶는다.

탈관 시에는 멧베를 하는데 베 한 필을 7등분하여 깔고 양끝을 세 가닥으로 나누어 아래에서부터 묶어 21매가 되도록 매질한다.

6. 관 속에 석회를 편 후 염포를 깔고 지오·베개를 놓고 시신을 올려 놓은 후 천금으로 덮고 염포 날개를 덮어 여미고 백지, 옷 등으로 보공을 한 후 백지로 덮고 관뚜껑을 덮는다.

소창으로 관 끈을 엮어 들기 좋게 손잡이를 하고 명정을 덮고 관보를 씌우고 제자리에 관을 모시고 병풍을 친다.

수의를 착의 방법은 신분계급과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현행 역시 그 연원에 따라 차이점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현재 불교 연화회에서 교육하고 있는 수의 착의법을 제시하였으므로 수의 착의법 기본틀의 검증 및 보편타당성 제시에 제한점이 있었음을 밝히면서 추후 연구의 근간으로 삼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 1) 백영자, 전통의례복 구성에 관한 연구(여자수의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논문집 제26집, p.431
- 2) 광명숙, 수의문화 및 수의복식의 소고, 수의문화 세미나 및 수의작품 전시회 자료집, p.27
- 3) 송호수, 한국인의 수의문화, 제1회 수의문화 세미나 및 수의 작품 전시회 자료집, p.9
- 4) 신규호·유정행, 원왕생 의식집, 대한불교연화회, p.88
- 5) 신규호·유정행, 앞 글, p.88
- 6) 백영자, 앞 글, p.430
- 7) 광명숙, 앞 글, p.21
- 8) 박영순, 전통한복구성, 신양사, p.331
- 9) 석주선, 우리나라 옷, 광문출판사, p.130
- 10) 석주선, 앞 글, p.109
- 11) 송호수, 앞 글, p.9